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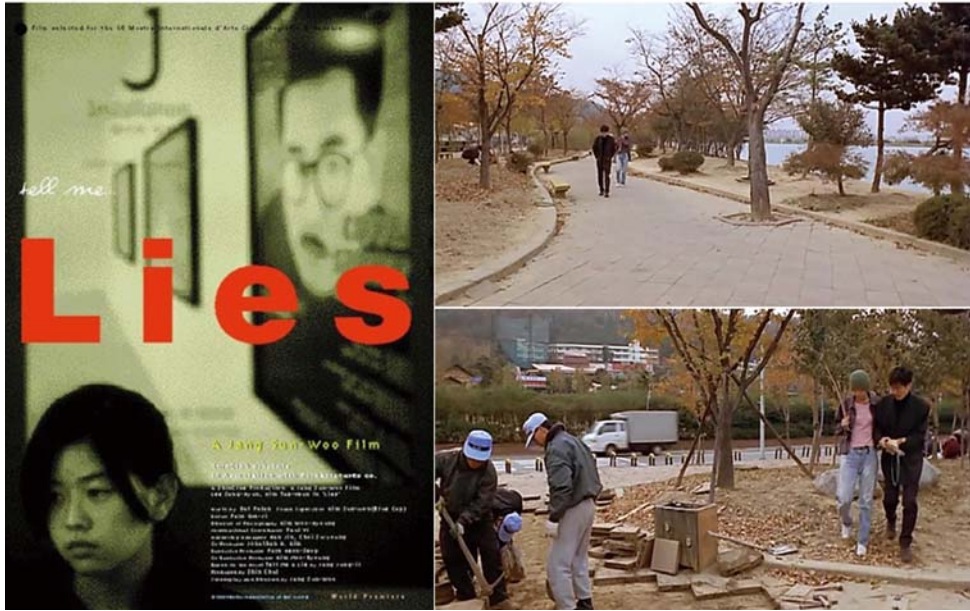
장선우 감독의 문제작 ‘영화 거짓말’의 주요 배경 ‘위험한 사춘기’ ‘도약선생’도 수성못 일대에서 촬영

영상은 환경의 유동성과 움직임을 포착한다. 그리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기록한다. 우리의 도시공간은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적어도 낮이 익다. 그러나 화면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해 온 공간을 발견하게 되면 익숙함과 낯익음은 놀라움과 새로움이 된다. 그래서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로케이션은 일상적 장소의 재발견이며, 특정한 시간을 기록한 한 장의 문화적인 스냅사진이다.

수성못이 바로 그런 곳이다. 영화 장선우 감독의 문제작 ‘거짓말’을 비롯해 배우 여운계의 유작으로 관심을 모은 ‘위험한 사춘기’, 육상과 대구를 주요 키워드로 삼은 ‘도약선생’ 등이 수성못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1. 장선우 감독의 문제작...영화 ‘거짓말’ (2000)

장선우 감독의 2000년 작 ‘거짓말’은 대구 출신 작가 장정일의 1996년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영화화한 것이다. 장정일은 그 소설로 인해



장선우 감독의 문제작 '거짓말'의 포스터와 수성못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의 한 장면.

법정 구속, 징역 10개월 형을 받았으며 출판사는 사과 광고를 싣고 책을 회수해 파기해야 했다.

영화는 소설만큼이나 사회적인 경악과 분노를 일으켰다. 18세 고교생 Y와 38세 조각가 J의 연애이야기로, 사회로부터 이탈해 철저하게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고 싶은 개인의 갈망을 강도 높은 에로스로 보여준다. 미성년자와의 섹스, 가학과 피학 등 온갖 금기항목이 총출동해 충격을 줬다.

수성못은 영화의 중반부에 등장한다. 몇몇의 인부들이 수성못 가 인도의 보도블록을 깔고 있고 남녀 주인공은 가학을 위한 도구를 주우며 민중해한다.

영화 속에는 열 곳이 넘는 여관이 등장한다. 실제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동

대구역 주변의 여관들을 골라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 이외에도 동대구 투어리스트 호텔, 대백프라자 앞거리 등이 등장한다.

장선우 감독은 “세트를 하나도 안 썼다. 촬영지는 인물들의 시작과 몰락의 질감들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 여배우 여운계의 유작...영화 '위험한 사춘기' (2010)

대구 출신인 김영한 감독의 영화 '위험한 사춘기'는 사회 전반에 걸친 청소년의 성 문제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영화다. 영화는 성 폭력 피해자의 전반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과감히 공개한다. 또한 기성세대의 이중적인 성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책임지며 미래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들의 희망을 담고 있다.

제작 총지휘는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장이 맡았고 이순재, 여운계, 현석, 김보미 등이 출연했다. 특히 지병으로 사망한 여배우 여운계의 유작으로



배우 여운계의 유작으로 남은 영화 '위험한 사춘기'는 수성못 일대에서 촬영됐다.

관심을 모았다.

수성못 일대에서 촬영이 시작되었고 그 외 동대구역, 대구역 앞, 신천 둔치, 중앙통 일대, 앞산 승마장, 두류공원, 달성공원 등이 배경으로 등장했다.

#3. 육상과 대구를 주제로...영화 '도약선생'(2011)

대구와 육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출발한 영화 '도약선생'은 '은하해방전선'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의 윤성호 감독 작품이다. 한국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박혁권, 박희분, 나수윤, 이우정 등이 출연했다. '도약선생'은 스포츠를 소재로 하지만 스포츠 영화만은 아니다. 영화는 한국 육상계의 원대한 도약을 꿈꾸는 전영록 코치, 꿈과 사랑을 위해 장대높이뛰기에 도전하는 원식과 재영을 통해 청춘들이 도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수성못 서편에 있는 수성랜드를 비롯해 대구스타디움, 이상화 고택, 동촌유원지, 동성아트홀 등이 영화의 배경으로 나온다. 수성랜드는 주인공 원식이 룸메이트와의 우정을 추억하는 장소로 나왔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겨냥해 제작한 영화 '도약선생'은 수성못 서편 수성랜드를 배경으로 촬영됐다.